
 보건복지부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<small>HEALTH INSURANCE REVIEW & ASSESSMENT SERVICE</small>	보 도 참 고 자 료			
	2020. 7. 22. / (총 9매)			
배 포 일				
보건복지부	과 장	이 영 재	전 화	044-202-3090
기초의료보장과	담 당 자	이 원 의		044-202-3094
건강보험심사평가원	부 장	이 경 수		033-739-0930
통합돌봄정책연구부	담 당 자	이 요 셉		033-739-0946

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‘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권역별 협의체’ 구성·운영

- 보건복지부(장관 박능후)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7월부터 민·관이 참여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고 밝혔다.
- 정부는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해 있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돕기 위해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
- 권역별 협의체에는 보건복지부와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의료기관, 의료·복지서비스 제공기관, 학계 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여 지역의 특성에 맞도록 시범사업에 필요한 각종 지원·연계 사업, 보완 서비스 등을 탐색하고 협의한다.
- * 경기권(남양주시, 안산시, 부천시), 충청권(천안시, 진천군, 청양군), 호남권(광주 서구, 전주시, 순천시), 영남권(부산 북구·부산진구, 김해시, 제주 서귀포시)
- 지난해 6월부터 전국 1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의 하나로, 장기간 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 수급자가 퇴원 후 지역사회 정착에 필요한 의료, 돌봄, 식사, 이동, 주거 개선 등을 통합·연계적으로 제공하고 있다.

-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합돌봄정책연구부(연구책임자: 이요셉 부연구위원)의 설문조사에 따르면, 시범사업으로 퇴원한 재가 수급권자의 88% 이상이 시범사업 전반에 대해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, 79.3%는 재입원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.
- 영국, 일본 등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먼저 시행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역의 민·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.
 - 스웨덴은 ‘사회서비스법’ 개정을 통해 지역의 책임과 재량을 확대하고, 영국은 ‘커뮤니티케어법’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케어 매니지먼트를 도입하고 있으며, 일본 또한 지역포괄케어센터 설치를 규정(‘05)하여 지역의 역할 및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.
- 협의체 구성이 완료된 지역은 권역별로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의 성과 공유, 개선방안 등 추가 논의를 위하여 지역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.
 - 지난 7월 10일 토론회를 진행한 충청권에 이어, 오는 7월 28일 영남권에서 다음 토론회를 추진할 예정이며 앞으로 경기권, 호남권 등으로 협의체 구성 및 토론회를 순차 진행할 계획이다.
 - * 코로나19 감염 예방 등을 위해 참석자 간 거리 두기 유지 및 마스크 착용, 손 소독제 사용 등 방역 조치 예정
- 보건복지부 양성일 사회복지정책실장은 “각 협의체에 참여하는 지역사회 전문가, 임상가 등이 유기적·협력적 논의를 통해 장기입원 수급권자의 지역사회 복귀를 촉진하고, 만족도 높은 재가생활을 할 수 있는 방안 도출을 기대한다.”라고 밝혔다.

- < 붙임 > 1.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
2. 재가 의료급여 참여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

붙임 1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 개요

- (사업목적) 의료급여 퇴원자의 지역사회로의 원활한 복귀 및 정착을 위한 재가 의료와 돌봄의 통합·연계 모델 개발
 - 복합욕구를 가진 저소득 취약계층 케어모델 개발을 통해 향후 커뮤니티케어 보편적 확대 및 성공적 안착의 기반 조성
- (근거) 시범사업(보건의료기본법 제44조), 의료급여 사례관리(의료급여법 제5조의2)
- (대상자) 동일상병으로 1회당 31일 이상 장기입원자 중 입원 필요가 낮아 퇴원이 가능한 의료급여 수급자
 - ① 65세 이상 입원자, ② 60세 이상 입원자, ③ 60세 미만 입원자 중 입원치료 필요성이 낮은 의료급여 수급자
 - 의료급여관리사 규모에 따라 시군구 당 5~50명, 13개 시군구 총 285명
- (지원내용) 재가 의료급여는 의료·돌봄·식사·이동지원 외 주거개선, 냉난방비 등을 제공하여, 장기입원 퇴원자의 재가 생활 안착 지원
 - (원칙) 연계 가능한 기존 서비스를 우선 지원하고, 부족한 부분에 한하여 재가 의료급여를 통해 보충적으로 제공
 - (필수급여) 의료·돌봄·식사·이동 등 모든 대상자에게 필수적으로 제공하는 급여
 - (의료)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담당 의사, 간호사, 의료사회복지사, 영양사로 구성된 지원팀을 연계하여 실시간 의료·영양상담 및 외래 이용 모니터링
 - * 외래 의료이용은 기존 의료급여 방식(의료비 지원)으로 별도로 제공
 - (돌봄) 요양보호사 방문을 통해 일상생활 유지에 필수적인 청소, 세탁, 음식 조리 등 가사 지원 및 간병 서비스 제공

- (식사) 복지관, 민간 도시락 제공기관 등을 활용하여 대상자 필요에 따라 일 1식~3식 제공
- (이동지원) 수급자 교통비 카드 지급이나, 택시업체 계약 등을 통해 병원 외래진료를 위한 이동을 위한 교통비 지원(월 최대 8회)
- (선택급여) 지자체 복지서비스로는 부족하여 추가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주거개선, 냉난방비 등 지원

< 필수 급여 최대 예산집행 한도 >

지원분야	단가	월 최대 제공량	월 최대 예산한도
의료	케어플랜 68,180원	1회	97,296원
	모니터링 7,279원	4회	
돌봄	시간 당 최대 14,800원	20시간	309,500원
	본인부담금 월 15,000원	(36시간*)	
식사	1식 당 최대 6,000원	62식**	372,000원
이동지원	1회 당 최대 8,820원	8회	70,560원
합계			849,356원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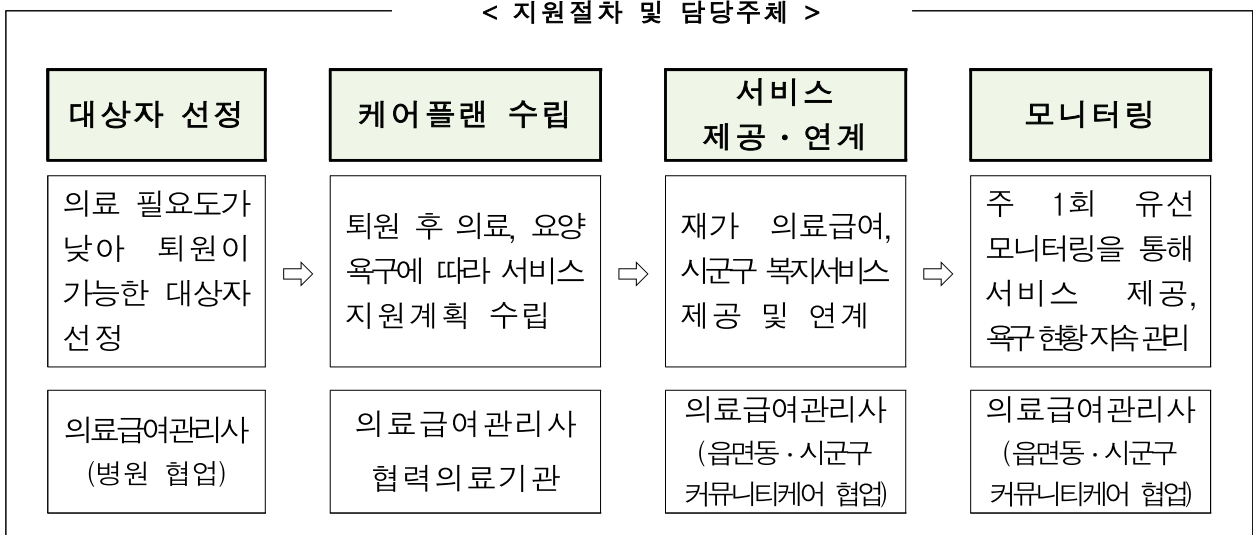
* 일상생활지원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36시간 지원

** 1식당 단가가 6천원 이하인 경우 월372천원 한도에서 월62식 이상 지원 가능

(예산) '20년 총 15억원(국비 12억원, 지방비 3억원)

(지원절차) 의료필요도가 낮은 장기입원자를 발굴하여 재가생활의 욕구에 따른 케어플랜 수립, 서비스 제공·연계, 모니터링

< 지원절차 및 담당주체 >



붙임 2 재가 의료급여 참여 수급자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

□ 조사 개요

- (개요) 재가 의료급여 시범사업에 대한 대상자의 서비스 만족도 및 서비스 이용 경험 조사
- (조사 대상·방법) 시범사업 참여 대상자 195명에게 전화 조사(20.5)
- (응답률) 총 116명(59.49%)

□ 조사 결과

- (서비스 만족도) 응답자 대부분(88.8%)이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

사업 전반 서비스만족도	응답자수(명)	백분율 (%)
매우 만족 한다	64	55.2
만족하는 편이다	39	33.6
보통이다	6	5.2
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5	4.3
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2	1.7
합 계	116	100.0

- (재가생활의 만족도) 응답자 중 87.9%가 현재의 재가 생활에 만족

입원대비 현재생활 만족도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만족한다	52	44.8
만족하는 편이다	50	43.1
보통이다	5	4.3
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5	4.3
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4	3.5
합 계	116	100.0

- (재입원 고려 여부) 응답자 중 79.3%는 재입원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응답
 - 응답자 중 일부는 거주 불편(가전·가구 부족, 거주지 문제), 건강 악화, 돌봄 부재, 생활비 등으로 재입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응답

재입원 고려 여부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전혀 그렇지 않다	66	56.9
별로 그렇지 않다	26	22.4
보통이다	6	5.2
그런 편이다	12	10.3
매우 그렇다	6	5.2
합 계	116	100.0

- (단골병원 이용 여부) 응답자 대부분이 단골병원을 가지고 있으며, 92.6%가 종합적인 의료관리를 받고 있다고 응답

단골병원 보유 여부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	건강 종합관리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있다	109	95.6	매우 잘 관리하고 있다	59	62.8
			대체로 관리하는 편이다	28	29.8
			보통이다	5	5.3
			별로 관리하고 있지 않다	1	1.1
			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다	1	1.1
없다	5	4.4	-	-	-
합계	114	100.0	합 계	94	100

- (자가 건강 관리) 응답자 중 56%가 스스로 자가측정 및 관리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응답자의 95.7%가 약 복용을 잘하고 있다고 응답

체온혈압혈당 자가 관리 정도	응답자 수 (명)	백분율 (%)	약 복용 정도	응답자 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잘 관리한다	39	33.6	매우 잘 챙겨먹는다	95	81.9
대체로 관리하는 편이다	26	22.4	대체로 챙겨먹는 편이다	16	13.8
보통이다	4	3.5	보통이다	2	1.7
별로 관리하지 않는다	20	17.4	별로 챙겨먹지 않는다	1	0.9
전혀 관리하지 않는다	27	23.3	전혀 챙겨먹지 않는다	2	1.7
합 계	116	100	합 계	116	100

- (돌봄 서비스 이용) 응답자 중 71.1%는 돌봄제공 시간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으며, 84.2%는 시간대 또한 적절하다고 응답함

서비스 제공시간의 적절성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	서비스 제공시간대의 적절성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그렇다	24	31.6	매우 그렇다	32	42.1
그런 편이다	30	39.5	그런 편이다	32	42.1
보통이다	5	6.6	보통이다	7	9.2
별로 그렇지 않다	14	18.4	별로 그렇지 않다	3	3.9
전혀 그렇지 않다	3	3.9	전혀 그렇지 않다	2	2.6
합 계	76	100	합 계	76	100.0

무응답 : 4명

- (식사 제공 서비스) 응답자 87.3%가 원하는 형태(일반식, 당뇨식, 저염식, 연식 등)로 식사가 제공된다고 응답하였으며, 78.4%가 만족한다고 응답

식사 요청서비스 수혜정도	응답자 수(명)	백분율 (%)	식사 서비스 만족도	응답자 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그렇다	34	54.0	매우 만족한다	39	36.0
그런 편이다	21	33.3	만족하는 편이다	36	42.4
보통이다	-	0.0	보통이다	5	5.9
별로 그렇지 않다	5	7.9	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4	4.7
전혀 그렇지 않다	3	4.8	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1	1.2
합 계	63	100	합 계	85	100.0

무응답 : 29명

무응답 : 7명

- (병원 이동 서비스) 응답자 88.4%가 이동서비스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
- 불만족 사유로 근거리로 업체에서 서비스 제공 거부, 대기 시간 등

이동서비스 만족도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만족한다	28	65.1
만족하는 편이다	10	23.3
보통이다	2	4.7
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3	7.0
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-	0
합 계	43	100

- (주거 개선 서비스) 응답자 중 80%는 주거제공서비스에 대해 만족하였으며, 70%는 주거개선(집수리) 서비스에 대해 만족

주거제공 만족도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	주거개선 만족도	응답자수 (명)	백분율 (%)
매우 만족한다	22	73.3	매우 만족한다	24	48.0
만족하는 편이다	2	6.7	만족하는 편이다	11	22.0
보통이다	3	10.0	보통이다	1	2.0
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0	0.0	별로 만족하지 않는다	1	2.0
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27	100	전혀 만족하지 않는다	-	-
합 계	44	100.0	합 계	50	100.0

무응답 : 3명

무응답 : 13명